

허위 판치는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로 신뢰 회복 기대

지금까지 영세 개인 사업자 중심
5년간 판매량 평균 380만대 유지
소비자불만 ‘성능 불량’ 절반 차지

현대차·기아 정관변경 절차 마쳐
전용 매매센터 상반기 완공 목표
KG모빌리티도 하반기 진출 계획



서울의 한 중고차 시장.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면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생
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
다. 하지만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한 허
위 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
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진
출에 나서면서 소비자 불안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年 30조 중고차 시장…소비자 불안
여전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 380만여대로
매머드 시장이다.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
고차 판매량은 377만대로 지난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평균 380.2만대를 유
지하고 있다. 국내 신차 판매량이 같은
기간 평균 178만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규모 면에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
다. 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
차 시장 금액 규모 추정치는 약 30조원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은 몸집만 키웠을
뿐 시장의 투명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2020
~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는 9376건으

로 그중 ‘성능상태 불량’이 4614건
(49.2%)을 차지했다. 소비자연맹이 소비
자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이력
미고지’가 1034건(11%), ‘위약금 부과 및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02건(4.3%), ‘계
약해지·해제’ 311건(3.3%), ‘고지 내용과
상이함’ 267건(2.8%) 순이었다.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차 시장 문제해결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국토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근
절방안 간담회’를 갖고 경찰청, 지방자
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조사 대상이며, 오는 5월31일까지 중고

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 제
보받는다.

◆완성차 업계 진출…시장 투명성 기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변경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 사업
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
관 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중고차 판매업을 위해 회사의 근
본 규약인 ‘정관’내 사업목적을 변경하
는 절차로 기아도 지난 17일 주총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를 적치
할 부지 확보와 인증 중고차 사업에 필
요한 전산 작업과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기아
는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중고차 전
용 매매센터를 짓고 있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성능과 품질 검
사를 끝낸 자사 브랜드 중고차로 소비
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5
년·10만km 이내 자사 차량을 대상으로
200여개 정밀한 성능 검사와 수리를 마

친 차량을 판매한다.

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진출 초
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대수를 제한해
이를 유지할 방침이다.

KG모빌리티(구 쌍용차)도 중고차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를 건다. KG모빌
리티의 인증 중고차 사업은 5년·10만k
m 이내의 KG 모빌리티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
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 규모는
크지만 피해사례가 꾸준히 지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
다”며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이 진출
하면서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대기
업과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선호도
는 극명히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벤처·스타트업, 기업 평균 3배 이상 고용

전체 기업 재직 인원 2.4% ↑
같은 기간 벤처·스타트업 8.1% ↑
특히 벤처투자 기업 29.8% 증가

청년·여성 고용 변화도 눈에 띄어

지난해 벤처기업, 창업기업(스타트
업)들이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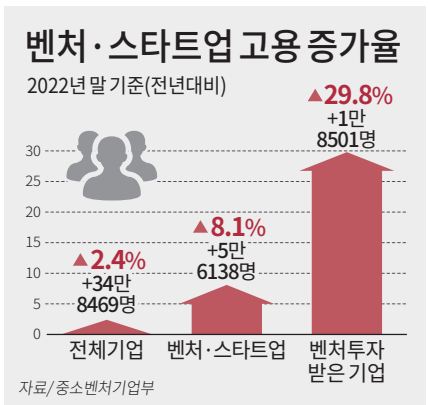
전체 기업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고용
이 늘면서다. 특히 벤처캐피탈(VC) 등
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12배가 늘면
서 가장 눈에 띄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3
일 발표한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 자료에서 나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재
직 인원은 2021년 1455만33명에서
2022년 1489만8502명으로 1년간 34만
8469명(2.4%) 늘었는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벤처·스타트업 3만
3045개사 인원은 68만9662명에서 74만
5800명으로 5만6138명(8.1%) 증가했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는 6
만2152명에서 8만653명으로 1만8501
명(29.8%) 늘어났다. 이들 기업에 들어



간 지난해 벤처투자액만 5조7183억원
으로 이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을 신규
채용에 쓴 것이다.

또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 15개사의
고용도 1년새 22.9%(1847명)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스타트업 청년·여성 고용도 눈
에 띄었다. 벤처·스타트업의 청년 고용
은 19만782명(2021년)에서 19만7582명
(2022년)으로 6800명(3.6%)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오히려 1.2%(3만475명) 감소했
다. 청년 인구 감소, 사회 진출 연령대
상승, 업종별로는 콘텐츠 및 디지털 관

련 업종의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특히 영상·공연·음반 업종은 드라
마, 음악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유행으
로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15.4%(1764명 증가)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외에 디지털 기
술의 발달로 게임(14.9%, 1820명 증
가), ICT 서비스(12.3%, 1만9177명 증
가), 유통·서비스(10.0%, 8924명 증가)
도 채용이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고용증가율은
전기·기계·장비(5.8%), 화학·소재
(5.0%), ICT 제조(4.3%) 등이 5% 안
팍으로 전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증가
율(8.1%) 대비 낮았다.

이영 장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파
른 경기둔화·국면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의 고용 규모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청년과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미국 실
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
투자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지
만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성장자금을
차질없이 공급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지
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
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시몬스, ‘N32 모션 커브드 베이스’ 출시

23일 시몬스에 따르면 신제품은 감각적
인 디자인의 프레임인 루엔2, 솔레이, 라
비에, 카누스, 테아노 등 11종과 호환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N32 모션 커브드 베이스는 5개 플레
이트로 분절돼 사용자의 자세 및 수면 환경에 따라 세밀한 각도 조절이 쉽다.

/시몬스

“오늘 주문하면, 반드시 내일까지 배송”

CJ대한통운 ‘내일 꼭! 오네’ 서비스
도서산간 지역 제외한 전국서 적용

CJ대한통운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는 ‘내일 도착보장 서비스’를
4월부터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늘 주문한 상품이
반드시 내일까지 배송되도록 보장하는
‘내일 꼭! 오네’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
이라고 23일 밝혔다.

4월부터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지리
적 제한이 있는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
한 전국에 적용된다.

기존의 택배서비스는 대부분 고객에
게 다음날 배송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의
요일별, 계절별 물량에 따라 2~3일 가
랑 소요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일 꼭!
오네’는 판매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
을 통해 오늘 주문한 상품을 내일까지
확실하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만약
내일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자에

게 우선적으로 보상한다.

판매자가 물류 전과정을 요청할 경우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풀필먼트센터
에서 당일 자정까지 주문한 상품들에
대해 상품보관, 재고관리, 포장 등의 작
업을 일괄 수행 후 전국 택배 인프라를
통해 고객에게 다음날 배송한다. 반면
판매자가 CJ대한통운 풀필먼트센터에
입점하지 않고 배송과정만 맡길 경우엔
판매자와 협의한 시간에 맞춰 판매자측
에 대형 운송차량을 보내거나 집화기사
가 방문, 상품을 수거해 오는 형태로 운
영한다. 이 상품들은 새벽시간 동안 택배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을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해 다음날 고객에게 전
달된다.

회사측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이커머
스 판매자와 일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
는 판매자는 ‘내일 꼭! 오네’를 통해 사
업 경쟁력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현대자동차·기아, MEA 공동개발 나서

美 ‘어드벤처 테크놀로지스’와
친환경 모빌리티 확장 가속화

현대자동차·기아가 고온형 연료전지
의 핵심 부품인 막전극집합체(MEA)
생산 업체 ‘어드벤처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수소 사회 대중화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어드벤처 본사에서 M
EA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MEA
는 수소연료전지에서 산소와 수소간 결
합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
품이다. 어드벤처는 미국의 수소연료전
지 전문 소재 생산 업체로, 고온형 연료
전지용 MEA 생산 분야에서 최고 기술
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초고온 수소 연료전
지용 MEA와 스택의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최대 온도 200도에서 작동
되는 초고온 연료전지 시스템은 100도
이하에서 구동하는 저온형 연료전지보
다 안정적이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연료전지가 향후 항공·선박 등 대형
이동수단의 친환경 동력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친환경 모빌리티 확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